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새고려신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1년 2월 12일 (금) (음력 1월 1일) Пятница 12 февраля 2021г. № 6 (1192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2월 12일은 음력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월12일은 음력설이다. 설날 공연에서.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인 음력설은 봄의 시작이며, 음력으로 새해를 맞는 날입니다. 음력설은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계획, 성취, 희망의 상징입니다. 음력설을 앞두고 우리들의 어르신들께 드리는 인사는 늘 보살펴주시고, 이해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전통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음력설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우리가 반드시 반갑게 만날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 안에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과 행복함과 건강과 평화와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내에 온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경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고, 새해, 새로운 변화, 새로운 희망으로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지사, 사할린의 사업 대표자들을 만나

사할린의 사업가들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에게 사업에 지원받기가 더 간편해졌다고 전했다.

사할린에서는 행정적 절차가 축소되고, 자산 지원이 확대되고, 피드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과 기업 간 지속적인 대화이다. 팬데믹 기간에도 피드백으로 특별한 실효성을 얻었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언급했다.

코로나 19와의 투쟁이 한창일 때도 사할린의 사업가들은 낮은 금리로 109건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총 금액은 3억3천770만 루블리에 달한다.

직원들 월급 지급으로 이자 없는 대출이 제공되었으며 사업상 난관을 위해서는 은행의 신용 조건을 변경하기도 했다. 기업가들의 편의를 위해 '나의 사업' 사할린 센터가 활동을 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연구소와 다기능 센터, 연방 기관들이 연합했다.

사업가들과 창업 전의 창업가들이 '하나의 창구' 원칙에 따라 약 400 개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2020년에 사할린 센터에 2천 명 이상의 사업가들이 방문하여 150명의 사업가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했다.

사할린에서는 과세와 특허의 간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기업과 기관을 위해 낮은 세율을 도입하고 있다. 가까운 시기에 이에 대한 법안이 사할린주 두마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 기획의 일환으로 올해 사할린의 도로 15km 정비

2021년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의 도로 15km 이상을 정비할 계획인 가운데 건설과 보수에 총28억 루블리가 책정되었고 이 중 1억7,550만 루블리는 연방 예산이다.

네벨스크 - 토마리 - 샤희초르스크 공항과 노위시비르스크예, 크라스노고르스크, 체호브 마을의 변두리 도로 구간 정비 작업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도시권 지역에서는 8km가 넘는 도로망을 표준 규정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주 중심지는 레닌, 우크라이나카야, 파마트나야, 젤레즈노도로즈나야 거리들에 따라 구역이 생긴다. 북서부 우회도로와 젤레즈노도로즈나야 거리를 비롯한 다른 시설들에서 정비 작업이 시작된다. 총 128m²의 도로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32곳의 버스 정류장이 신설되며, 28km 이상의 도로에 횡단보도를 조성하고, 14km의 인도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2020

년에는 코스트롬스코예와 흠스크 구역에 구간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노워알렉산드롭스크의 크라스노셀스크 강에는 다리가 건설되었다.

달네예와 울로츠키 마을 사이 도로가 개건되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포그라니츠나야 거리 - 콤소몰스카야 거리부터 고리까야까지 -를 아스팔트로 포장했다.

국가기획 '안전하고 품질 좋은 차량 도로'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다. 예상되는 실적은 러시아 표준 규정에 따른 지역 도로 점유율이 55% 이상이어야 하며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권 지역의 도로망 점유율은 85%까지 높여야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사할린주의 도로 유지 비용이 6배나 증가했다. 많아진 민원 요청으로서 도로 청소와 도로 보수, 주거지 구역에 전반적인 도로 상황 개선을 지적했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러시아 인구조사 4월에서 9월로 연기

전 러시아 인구 조사가 2021년 9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조정되어 가을쯤에는 국내 팬데믹의 상황이 안정될 거라 전망하는 가운데 러시아 연방 정부는 9월에 인구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당초 전국 인구조사는 2020년10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여름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1년 4월로 연기되었고 현재 다시 실시 기간이 연기되었다.

러시아 통계청은 "2021년 9월이면 전 러시아 인구조사를 실시할 적당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은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구조사를 위해서는 거주지에 주민수가 최대한이어야 하는 점이다.

"여러 여건 속에서 인구조사를 위한 최적의 기간은 9월이다. 이 시기는 주민들이 휴가에서 돌아오며 학기와 사업이 활발하게 준비되는 시기이고, 다양한 공무들을 해결하고, 전자서비스 이용이 더 잦은 시기이다." 라고 통계전문가들이 덧붙였다.

<p>새고려신문</p>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p>	<h2>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h2>	 <p>(본사 편집부)</p>
------------------------------------------------------------------------------------------------------------------------------------------------------------------------------	----------------------------	-------------------------------------------------------------------------------------------------------

요리에 정성을 다하는 <루고워예>카페 김 마리나 사장 '주방에서는 오케스트라처럼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사적인 일로 <루고워예>카페를 찾았다. 그 식당에 가본 지 한 20년이 되었고, 옛 기억으로 그곳 한식 맛이 특별했다. 식당에 간 김에 점심도 먹어봤는데 맛도 꽤 괜찮고 요리가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다.

그때 김 마리나 젠소눔나 사장(1963년생)을 만나 이 식당의 맛의 비결과 특성을 취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카페 사장을 설득해 이번 수요일 아침 <루고워예>식당을 취재하게 되었다.

올해 6월에는 이 식당이 생긴 지 33년째를 맞는다. 사실 개인 운영의 식당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식당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30년 이상의 영업은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 역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 식당은 구소련 시대에 생겼으니 지난 세기에 생긴 것입니다."라고 식당 식구들이 이구동성으로 자랑했다.

33년 전 김 마리나 씨의 부친 김 종성 씨가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 당시엔 사할린 동포들이 운영하는 꽤 유명한 한식당이였다. 주방의 아주머니들이 요리를 잘 해서 정말 맛있다는 소문이 난 맛집으로 많은 러시아인 손님들도 찾아왔다.

2000년에 김종성 내외는 영주귀국하여 식당 운영은 딸 마리나에게 맡겨졌다.

"사실 자연스럽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거의 식당



개업일부터 이곳에서 근무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더러운'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사람이 부족할 때 청소도 했고, 설거지도 한 적이 있었고 나중에는 주로 출납계산 담당(카시르, 캐셔)으로 일했습니다."라고 마리나 사장이 설명했다.

사실 마리나 씨는 지금도 아무 직원인 대신할 수 있다. 청소부가 없으면 청소하고, 외투 보관원으로도 일할 수 있고, 조리사가 휴가 나가면 대신 요리도 한다. 필자가 찾아가는 날에는 김 사장은 음식을 배분했다.

"저는 아무 일도 거부하지 않아요. 주방 직원이 휴가 나가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제가 대신 일하고 있어요."라고 한다. 사장으로서 일에 귀찮이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쳐나가는 것



이 그의 스타일이었다.

<루고워예>식당은 시설 구내 식당과 비슷하다. 이곳에서는 줄을 서서 내놓은 음식(샐러드, 반찬, 빵, 음료수 등)중 먹고 싶은 것을 고르고, 수프(국)과 주요 요리는 배분하는 사람에게 주문하면 바로 뜨거운 요리를 받을 수 있다. 국 종류도 매일 5-6개, 반찬도 몇 가지가 있다. 메뉴에는 양식, 러시아식, 한식 - 혼합 요리가 제공되고 점심식사만 가능하다.

식당은 공식적으로 낮 12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단골 손님은 이미 11시부터 찾아온다. 어떤 사람들은 메뉴를 보고 찾아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 주요리인 '동양식 생선탕' (해물탕과 아주 비슷함)인데 이것을 보고 찾아온 손님이 꽤 있다. <루고워예>식당의 해물탕이 싸고 맛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플로브(중앙아시아 고기볶음밥)를 먹기 위해 찾아오곤 한다.

정오 12시면 60석의 식당이 꽉 찬다. 그 시간부터 한 2-3시간 동안

주방에서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 바쁜 시간이다.

손님들에게 깔끔하고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식당 직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한다. 그런데 성실한 직원이라서 이들은 이미 6시 반이면 식당에 도착한다.

현재 <루고워예>식당에서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거의 모두가 장기 근무자들이다. 특히 요리사들의 경력도 대단하다. 조복자 요리사는 식당 설립 초기부터 30년 이상 근무, 조영옥 요리사는 25년, 최경화 요리사는 16년째 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출신인 최간추크 알료나는 돈벌이를 위해 사할린을 찾아왔는데 이곳에서 10년째 요리사로 일하고 있다.

"우리가 그저 같이 일하는 사람 사이는 넘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같이 일하다보니 식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자기 일에 최선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크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이 식당에서 왜 이

렇게 오래 일하고 있나 하면 일단 일하는 분위기가 좋고, 동료들 사이가 좋고, 음식에 정성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김 사장이 말한다. 주방에서는 늘 새 메뉴 개발도 함께 의논한다고 한다.

사장의 의견에 요리사들이 적극 동참하며 "여기가 좋으니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지... 공정한 지도자 밑에서 일해서 우리가 만족합니다. 여성들만 있다는 게 가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항상 잘 풀린다."라며 거들었다.

"우리는 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고객에 대한 진심이다. 하나가 틀리면 모두가 억울해진다." 김 마리나 사장이 식당 식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마리나 사장은 환편 농담도 좋아하고 웃음도 많은 사람이지만 지도자로서 요구가 많고 강직한 분이다. 이것이 사업가의 장점이 아닐까 한다.

식당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하다 보니 3끼(아침식사, 2번째 아침식사, 점심)를 함께 먹으며 음식을 만들어 직접 맛을 평가하면서 손님을 위한 요리에 정성 담는다. 그리고 요리의 맛에 매출이 달려있고, 매출에는 직원들의 보너스도 달려있다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카페의 고객들은 거의 단골들이다. 20년 이상 된 단골도 있다. 식당에서 배달은 잘 하지 않지만 단골 고객의 단체 주문을 받고 있고 고객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3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현대 연구가들' 순환 전시회 출발

러시아 과학기술의 해를 맞아 '사할린의 현대 연구가들' 순환 전시회가 주 일반 과학도서관에서 열리는 가운데 5명의 향토 연구가들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전시회가 2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이 전시회에서 소개된 사할린의 학자들은 빅토르 웨글로브, 이고리 사마린, 블라디슬라브 라티셰브, 미하일 위소코브, 알렉산드르 코스타노비치이며 이들의 연구작들은 사할린 지역을 넘어 널리 알려져 있다.

'사할린의 현대 연구가들' 순환 전시회는 사할린 일반 과학도서관 향토학과에서 주최한다. 이 기획은 70년간 사할린주 연구에 있어 크게 공헌한 다양한 분야의 학구적 지식이 있는 학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람회는 4월8일까지 주 일반 과학도서관 2층에서 열린다고 도서관 홍보부가 전했다.

스타트вал цикл выставок "Современ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ахалина"

В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тартовал цикл выставок "Современ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ахалина", приуроченных к Году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в России. Первая экспози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пяти историкам-краеведам, начала работу с 8 февраля.

Выставка рассказывает об ученых Викторе Щеглове, Игоре Самарине, Владиславе Латышеве, Михаиле Высокове и Александре Костанове, чьи работы известны как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ак и за его пределами.

Цикл выставок "Современн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ахалина" организует отдел краеведения СахОУНБ. Проект призван рассказать об ученых из разных сфер научного знания, которые внесли заметный вклад в изучени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 последние 70 лет.

Экспозиция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СахОУНБ и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8 апрел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библиотеки.

사할린 주민들, 화산 분출 실험과 KAMAZ트럭 가상운전을 익히다

사할린 국립대학 축이 정기 행사로 공개 실험실을 진행했다. 올해는 지원자들이 시험을 치르고 특별한 실험에 참가하는 가운데 그중 100여 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주로 학생과 대학생 뿐 아니라 오래 전 대학을 마친 사람들도 있다. 이들 참가자들에게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화학, 기술 부분의 지식을 테스트했다. 첫 단계에서는 시험을 치르고 다음 교사는 정답을 제시하며 어려운 점들을 설명하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 주었다.

정답을 많이 맞추어 압도적으로 1등을 한 사람은 교사 지망생인 사할린 국립대학의 대학생 나탈리아 제미니야이다. 시험 후 가장 흥미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앞서 설명한 것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화학 수업에서는 학생들과 성인들이 작은 미니 화산을 설치하고, 여러 기체들을 풍선에 넣어 넣고 무색 잉크로 글을 써보았다. 지질 및 석유산업학과의 부교수 야니나 제니소와는 '파라운의 뱀'이라는 볼만 한 실험을 보여주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교통차량 개발연구소의 가상 도로에서 카마즈(KAMAZ)트럭을 운전해 보고, 이동식 체험 상영관에서 공룡에 대한 영화도 관람하며 '관토리움' 아동 테크노파크 행사장에서 드론 조종도 체험했다.

'공개 실험실' 행사는 2017년부터 러시아에서 진행되다가 2020년부터는 여러 나라에서도 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할린은 3년 전에 이 행사를 시작했다.

Сахалинцы взорвали вулканы и поучились водить виртуальные КамАЗы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ниверситет провел традиционную акцию «Открытая лабораторная». Желающих пройти

тесты 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необычных опытах в этом году набралось около ста человек — в основном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но были и люди, давно закончившие вузы.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ожили проверить знания в физике, астрономии, биологии, химии и технологиях.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нужно было пройти тест, затем преподаватели давали правильные ответы и объясняли сложные моменты, попутно рассказывая интересные факты.

Абсолютным лидером по количеству правильных ответов стала студентка СахГУ Наталья Демина, которая сама планирует стать педагогом.

После разбора тестов участников ждало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 можно было буквально «пощупать» то, о чем шла речь ранее. Например, на занятии по химии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устроили мини-извержения вулканов, надували шарики разными газами и писали невидимыми чернилами. Доцент кафедры геологии и нефтегазового дела Янина Денисова показала зрелищный опыт — «фараоновы змеи»..

Также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водили КамАЗы по виртуальной дороге в лаборатории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транспортных машин, смотрели фильмы про динозавров в мобильном планетарии и летали на дронах на площадке дет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Кванториум».

Акция «Открытая лабораторная» проводится в России с 2017 года, а с 2020-го — и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мира. Сахалин подключился к ней три года назад.

사할린에서 첫 사할린주 얼음물 수영대회 개최

2월 20일 코르사코브시에서 사할린주 얼음물 수영대회가 열린다. 경기 진행지는 오호츠크예 마을에 있는 '레스노예 오제로' 재활센터 구역에 위치한 체르바츠노예 호수에서 열린다. 주 스포츠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수영대회 참가자 조건은 전문 스포츠인, 아마추어 스포츠인, 연령은 18세 이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 - 참가 신청서,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진단서, 의료보험증, 참가자의 체육활동이나 스포츠 행사에서 외상 또는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험증, 신분증 - 을 준비해야 한다. **(8면에 계속)**

설날

원단, 元旦, 세수, 歲首, 연수, 年首

원단(元旦), 세수(歲首), 연수(年首)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설이라고 한다. 설은 한자로는 신일(愼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한다"는 뜻이다.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데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탓이다.

설날의 세시풍속은 매우 다양하다. 설날이 다가오면 설달 그림날 자정이 지나자마자 북소리장사들이 북소리를 한 집 메고 골목을 다니면서 이것을 사라고 외쳐댄다. 각 가정에서는 1년 동안 필요한 수량만큼의 북소리를 사는데, 일찍 살수록 좋으며 집안에 걸어두면 복이 담긴다고 믿는다. 새벽에는 거리에 나가 처음 듣는 소리로 한 해 운수를 점치는 청참(聽讖)을 행하기도 한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미리 마련해둔 새 옷으로 갈아입는데 이 새 옷을 설빔이라 한다. 아침에는 가족 및 친척들이 모여들어 정초의 차례를 지낸다. 차례는 모처럼 자손들이 모두 모여 오붓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차례가 끝나면 어른들께 순서를 따져 세배를 올린다. 떡국으로 마련한 세찬(歲饌)을 먹고 어른들은 세주(歲酒)를 마신다. 세찬이 끝난 후에는 차례상에서 물린 여러 명절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음복(飲福)이 마련된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주며 덕담을 나누고 한해의 운수대통을 축원해준다. 이웃 및 친인척을 찾아

서 세배를 다니는 일도 중요한 풍습이다.

종류 이상의 가정에서는 부녀자의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문안비(問安婢)라 하여 여자종을 성장시켜 일가친척에 보내어 신년문안을 드리게 했다. 정초에 어른이나 친구를 만나게 되면 말로써 새해인사를 교환하는데 이를 덕담이라 한다. "과세 안녕하십니까?" 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는 식으로 설날인사를 한다.

벼슬을 하는 집에서는 옷질을 한 책상을 대청에 비치해 둔다. 그러면 밑에 거느린 아전들이 종이를 접어 이름을 써서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간다. 이는 새해 문안드린다는 뜻이며, 각 관청의 서리와 영문(營門)의 교졸(校卒)들도 종이에 이름을 적어 관청이나 선생의 집에 드리는데 이를 세함(歲銜)이라 했다. 이날 조상의 무덤을 찾아나서는 성묘도 행한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를 조상의 묘에 고하는 것이다. 정초에는 여러 가지 제액을 물리치는 속신이 있는데, 삼재(三災)를 물리치는 부적이나 문에 걸어두는 세화(歲畵), 귀신이 신을 신고 가면 불길하다고 신을 감추는 야광귀(夜光鬼) 쫓기, 각 간지마다 금기할 사항과 해야할 일을 정해두는 속신이 있다. 이 날은 웃놀이·종정도놀이·널뛰기·연날리기 같은 세시 민속놀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다음백과]

팬데믹 시 러(사할린)-한 관계를 살펴

지난 2020년은 러시아-한국 협력에 있어 어렵고도 의미 있는 해였다. 지난 해는 구 소련과 한국이 역사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30년이 된 해였다. 이미 2018년에 러시아와 한국 정상 회담 때 양국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하는 한편 국교 수립 30주년인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기로 했고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해 30주년 기념사업 계획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했다. 러시아-한국 관계도 글로벌 위기, 국경 폐쇄, 방역체제 등의 조건에 흡수되었다. 3월 27일부터 항공을 통한 왕래가 중단되었고, 10월 1일에야 일부 재개되었으며, 심지어 모스크바-서울 노선의 주 1회만 운항이 가능했다. 기존 정기 항공편이었던 블라디보스토크-서울, 유즈노사할린스크-서울, 상트페테르부르크-서울 항공편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 양국 간의 무비자 정책이 임시 중단되었고 관광 및 출장도 크게 줄었다.

이식배 주모스크바 대한민국 대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언급했듯 30년 이상 러시아-한국 수립된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15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고 무역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와 한국의 대학들은 교류와 학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2020년에도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동서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동국대학교, 한림대학교, 인천대학교, 원광대학교 등과 이미 협력에 대한 협약을 맺은 사할린국립대는 2020년에 수원대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방역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제학술회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기술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2020년 8월에는 한림대학교에서 한림대학교와 사할린국립대학교 상호 방문 국제 학술회의를 열어 <유라시아 대륙 한인 디아스포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연대>라는 주제로 온라인 콘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주요 안전 문제, 러시아 동포들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다루었다. 회의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자 3명이 화상으로 발표했다.

러시아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2020년 말,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광기동 소장이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기증하였다. 이 장비로 한국 관광객들에게 사할린의 역사, 문화와 자연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전에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의 지원으로 진 울리아 이바노브나의 논문 저서 "사할린의 한인 디아스포라: 본국 귀환 문제 그리고 소비에트와 러시아 사회로의 통합"이 번역되어 2020년 12월에 한국에서 출판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국경 폐쇄 등 어려운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기관 차원의 교류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러시아와 한국 간 협력 강화와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 울리아, 역사학 준박사, 사할린국립대 초빙교수

지난해 12월 사할린 및 쿠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85명 사망

러시아 통계청은 러시아의 자연적 인구 변동에 대한 정례 발표를 했다.

2020년 팬데믹의 총결 자료가 비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 증가로 그 수는 33만 명에 달했으며 비율로는 18%에 해당된다.

이 중 16만2천 명이 코로나 19 감염과 관련해 사망했다. 이 수치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되는 비상본부의 자료 속 사망자 7만7천 명보다 2배 이상 많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른 판단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기록적으로 악화된 수치를 보였다. 국내에서 지난해 12월 한 달 사이 24만3천 명이 사망한 반면, 2019년에는 14만9천 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망자 증가율은 63%인 9만4천 명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률은 11월에 증가하여 러시아인 사망자는 3만5천 명, 12월에는 4만4,800명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경우 2020년 12월에는 총 2만5천980명이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여 확진 여부를 위해 추가 의료적 검진을 실시한 경우 2020년 12월에 총 5천570명이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합병증 유발, 별도의 질환 악화에 영향을 주고 중증으로 악화시켜 환자를 속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020년 12월에 2천 65명이었다.

코로나19가 동반된 질환으로 코로나 19가 어떤 형태로든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아닌 경우는 2020년 12월에 1만820명이었다.

사할린주에서는 12월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790명이었고, 2019년에는 498명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는 292명으로 58.6% 증가했다.

지난해 총결에 따르면 6천600명 사망, 2019년 대비 581명이 증가했다. 통계청의 전 러시아 사망률과 비교해 보면 사할린의 사망 증가율은 9.6%로 낙관적인 편이다. 유일하게 긍정적 지표는 12월에 50명의 신생아가 출생해 출생률이 조금 증가 데는 지난 3월 휴일과 자가격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률은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12월에 코로나 19에 확진 판정을 받은 85명이 사망했다. 이 중 10명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임이 밝혀졌고, 코로나 19가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나 영향을 준 경우는 20명이었고, 55명에게서는 코로나 19가 발견되었으나 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경우였다.

러시아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사할린주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4개 범주에 따른 사망자 수는 213명이다.

사할린주 도서관, 도서 기증 접수

'세계 도서 기증의 날'을 사할린주 도서관이 기념하여 2월14일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로비에서 14시에 기념 행사가 조성된다. 이번 행사는 '독자 양성' 아동 독서관장 개발과 아동 문화 및 예술 협회가 주최하는 <사랑으로 도서를 기증해 주세요> 제5회 전국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기념일 전날까지 누구든, 어떤 출판물이든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에 책을 기증할 수 있다. 이로써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의 도서 교환 및 비치 목록이 충족되면 주내 지방의 도서관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도서 기증은 2월 8일부터 14일까지며 장소는 하바롭스카야 거리 78번지에서 접수한다. 행사에서 주 일반 과학도서관 관장인 나탈리아 무라토와는 명절의 유래를 얘기하고 왈레리아 포카타이킨의 수집품을 소개하는데 이 독특한 책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국내에서 인쇄 및 출판된 책들로 현재도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 특별 귀중품 및 희귀 문서제단에 보관되어 있다.

도서관 사서 크리스티나 공은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의 국제 협력 정보센터 사업의 주요 목적과 관련된 행사의 참가자들을 소개하고, 일본, 오스트리아, 대한민국의 영사관들과 도서 교류 및 협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2020년에 한국어 도서 1,500권 이상을 도서관에 기증했다.

주제 전시 및 박람회에서는 이들 책 일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도서를 무료로 배급한다. 행사에서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의 전문가들은 사할린주 러시아 방위국과 극동 철도국 대표들에게 도서 40여 권 이상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도서관 측이 밝혔다.

요리에 정성을 다하는 <루고워예>카페 김 마리나 사장 '주방에서는 오케스트라처럼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2면의 계속)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지난 해 3,4월 - 2개월 영업을 중단했는데 온 국민이 그랬듯이 식당도 어려웠다. 그래도 잘 이겨내 지금은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다.

김 마리나는 공식적 사장이고, 식당 운영은 내외가 하고 있다. 남편 이근봉(60) 씨는 기술적 문제와 서류를 담당한다. 이런 든든한 뒷받침이 있기에 식당이 운영되는 게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다. 짧은 기간 동안 이 부부를 지켜보며 부부에게서 서로에 대한 존

경, 신뢰, 배려가 느껴졌다. 이근봉 씨는 독서를 즐기는 편이다. 애기 도중에 그가 한국어도 스스로 배우고, 읽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아들(33)과 딸(27)이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부모에게 손자와 손녀를 선사했다.

마리나 사장은 블라디보스토크 기술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재봉과 관련된 전공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요리에 있었던 것 같다. 취미가 요리다. 집에서 뭔가 맛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고,

새 레시피 도전에도 주저하지 않고 만들길 좋아한다. 그래서 마리나 씨에게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도 모른다.

마리나 사장은 매일 안산에 사는 부모님과 연락한다. 식당, 집 이야기도 들려주기도 하고 80세가 넘은 부모님 건강도 걱정한다.

음력설을 앞두고 그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건강을 빌고 행운을 기원했다.

(배순신 기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имет в дар книг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книгодарения отметя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аздничная акция состоится 14 февраля в фойе СахОУНБ. Начало в 14.00.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в рамках V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Дарите книги с любовью",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Ассоциацией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искусства и просвещения по приобщению детей к чтению "Растим читателя".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ика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принести любые издания в дар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Они пополнят обменно-резервный фонд СахОУНБ и будут переданы муниципальным библиотека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ниги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с 8 по 14 февраля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Хабаровская, 78.

На акции ведущий библиотекарь СахОУНБ Наталья Муратова расскажет гостям об истории возникновения праздника и представит обзор коллекции имени Валерия Покатайкина. Это уникальные книги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здательств и типографий конца XIX — начала XX веков, репринтные и факсимильные издания,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хранятся в фонде особо ценных и редких документов СахОУНБ.

Библиотекарь Кристина Кон познакомит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и с основ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деятельност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ОУНБ, расскажет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и книгообмене с консульствами Японии, Авст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етит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Ли Бён Иль. В 2020 году он передал в дар библиотеке свыше полутысячи книг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 тематической выставке-ярмарке можно будет не только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екоторыми из них, но и бесплатно забрать понравившееся издания.

Также на акции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ОУНБ передадут более 40 книг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региональных управлений Росгвардии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библиотеки.

«Я люблю жизнь и умею мечтать!»

Заслуженной артистке России Аните Цой 7 февраля исполнилось 50 лет.

Анита, мы поздравляем вас с юбилеем! Знаем, что вы к этой дате подготовили для поклонников новое шоу. Рас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о нем.

Юбилейное шоу «Пятый океан» мы готовили больше года. Оно рождалось в очень непростое время, в условиях мировой пандемии. Приходилось подстраиваться под нов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менять что-то на ходу... проблем было много, и самая главная из них ожидала нас накануне премьеры, которая была назначена на 6 феврал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Кремлевском Дворце. Мы до последнего момента надеялись, что сможем встретиться со зрителями на моем шоу «Пятый океан» в преддверии важной личной даты. Но, к огромному сожалению, из-за всей сложившейся ситуации, Кремлевский Дворец не отрыл свои двери для зрителей. Мы перенесли дату нашей встречи в Кремле на 1 октября 2021 года.

Я — оптимист, и раздавленные клопы для меня всегда пахнут французскими духами. Несмотря на форс-мажор, я решила сдержать свое обещание, и обязательно отметить св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с поклонниками. Вместе со своей командой мы нашли выход из этой ситуации. И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трансляции шоу «Пятый океан» на телевидении. Декорации поместились только в самом большом павильоне студии «Главкино». Так что, праздновать юбилей я начала с ночи. Я знаю, как поклонники соскучились по празднику, сказке, хорошим эмоциям. И, конечно, оставить их в св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без нового шоу я не могла.

Шоу «Пятый океан» — шоу о поиске своего места силы. О мечте и желаниях, без которых невозможно жить. Мое место силы сегодня, мой «Пятый океан» — это мощная и бескрайняя стихия музыки, процесс создания шоу, преданного ежедневного служения делу жизни, безграничной любви к зрителям. Я объединила в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пять десятилетий своей жизни, вдохнула в нее музыку и песни, которые помогли мне жить и выживать, находить себя и свой путь.

Главные хиты прозвучат полностью в живом исполнен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сцен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90 человек: оркестр, музыкальный коллектив, бэк-вокалисты.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рисунок «Пятого океана» создаст балетная группа из 18 человек. Для шоу «Пятый океан» созданы эксклюзивные симфонические аранжировки в раз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стилях. Впервые знаковые хиты прозвучат в совершенно новом исполнении, живом сопровождении оркестра «Пятый океан», собранного из музыкантов лучших симфонических оркестров страны. Отражение разных эпох будет воплощено в эксклюзивных сценических костюмах певицы,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нных для шоу маэстро Валентином Юдашкиным.

Я счастлива, что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встречу юби-

лей на сцене, для артиста это самое большое счастье. Прошлым летом вы заболели коронавирусом. Как перенесли болезнь?

Вирус оказался очень противный, агрессивный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 он большо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Знаете, как он действует? Вот есть такая замечательная игра, раньше в парках ее выставляли: там дырочки, и из них головы лягушек выскакивают, а ты берешь молоток, бьешь по голове лягушку, и она выскакивает в другом месте, опять бьешь, она выскакивает в третьем месте. И надо очень быстро загасить всех лягушек.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так же работает сам COVID.

Я думаю, вы поймете, особенно кто переболел не в легкой форме, а хотя бы в средней тяжести, как это было у меня. Все, что в организме «плохо лежало», коронавирус попробовал. И, конечно, добрался до легких. 52% потери кислорода, легких — это было очень тяжело. Я не могу сказать, где я заразилась. Я не хожу по вечеринкам, я заявляю, что сидела на самоизоляции. У нас две мамочки — одной 80, другой 87 лет, и я их очень берегу. У меня вся семья была дома. Никто не заболел больше, я приняла удар на себя.

Чем ваша семья занималась на карантине?

Мне очень неудобно сейчас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ь, но на самоизоляции я кайфовала. Мне кажется, любому артисту задай этот вопрос, и любой артист ответит, что мы очень редко бываем дома, и большая мечта — просто побыть дома, отдохнуть, устроить каникулы какие-то, а тут вдруг целых два месяца. Я занималась домашним хозяйством, наконец-то доремонтировала свой дом, что пыталась сделать пять с половиной лет. Я всласть наобщалась со своими близкими и родными, с мамочками.

Поняла для себя, что мы очень редко общаемся с родителями, даже если они живут вместе с нами. Только спрашиваем, как здоровье, померим давление и бежим дальше.

Я получила колоссаль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того, что мы с мужем были вместе, играли вдвоем на гитарах, вспомнили нашу молодость. Ведь именно с этого начался наш роман.

Прошлым летом вы отметили серебряную свадьбу с супругом Сергеем Петровичем. Вспомните, как все начиналось...

Меня, конечно, выдали замуж по-корейски, но мы делились все равно несколько раз, и я помню, как мы просто взяли гитары и, не сговариваясь, запели на два голоса. Мы любили песни семьи Никитиных, очень любили бардов и любим до сих пор. И тогда я подумала, что «этот парень не такой плохой, наверное». Пять лет назад, когда у нас с мужем была серебряная свадьба, мы устроили с ним концерт для друзей, и это был колоссальный успех!

(Продолжение на 5 страниц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Корейский Новый год (Соллаль)

Корейский новый год (соллаль, кор. 설날) — первый день лунно-солнечного календаря,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праздников Кореи. Празднуется три дня: предновогодний день, сам Новый год и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Корейцы также празднуют Новый год по григорианскому календарю, но Соллаль считается более важным праздником.

В этом году Соллаль приходится на 12 февраля.

Лунный новый год для жителей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имволизирует начало весны. По их мнению, природа медленно начинает готовиться к пробуждению после долгой спячки.

Корейский Новый год — это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с установленными обычаями. Население южной части полуострова официально отмечает его три дня подряд. Корейцы встречают первые лучи солнца, вспоминают предков и едят национальные блюда.

Новый год в Корею, как и аналогичные праздники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и культурах мира, считается семейным. Семьи собираются вместе, устраивают застолья, соблюдают вековые традиции.

На Соллаль принято ездить к родителям, одеваться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одежду - ханбок. В этот день поминуют умерших предков, на алтарь накрывают ритуальные блюда, проводят ритуал чхаре (кор. 차례).

Хороший знак для жителей Кореи — увидеть в праздничную ночь на небе спутник Земли: Луна считается символом удачи. Если подставить под свет монетку, можно обрести финансов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По внешнему виду Луны определяют, каким будет предстоящий год: красный цвет говорит о засухе; белый — о дождях; яркий спутник Земли обещает хороший урожай; тусклый — плохой урожай.

Также хороший знак — посмотреть на первые лучи Солнца. Поэтому жители Кореи часто едут на восток, чтобы там полюбоваться «новым» Солнцем. Также популярными остаются морские локация, где открывается широкий обзор и можно без труда наблюдать за светилом. Когда восходит заря, каждый просит то, чего хочет, и считается, что пожелания непременно сбудутся.

Когда наступает Новый год, жители страны начинают трапезу с традиционного новогоднего супа ттоккук (суп с ри-



совыми клецками).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съел миску ттоккука, считается ставшим на год старше. Одна из форм осведомления о возрасте у корейцев — «сколько мисок ттоккука вы съели».

Совершается обряд «сэбэ» (кор. 세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ладшего поколения выражают уважение старшим. Дети делают глубокий поклон и желают «сэхэ пок мани падысе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получить много новогодних благословений). Обычный ответный жест родителей — дарение новогодних денег и небольшая «мудрая речь», токтам (덕담).

С Соллалем ассоциируются разнообразные игры: семейная настольная игра юннори (кор. 윷놀이), мужчины и дети мужского пола запускают воздушных змеев и играют в чегичаги (제기차기), разновидность футбола мягким мячом. Женщины и девочки играют в нольттивиги (널뛰기), раскачиваясь вдвоем на качелях в виде длинной доски; взлетая, каждый играющий выполняет какой-нибудь акробатический номер; а также в коньгинолие, жонглируя пятью камешками. Дети вместе раскручивают волчок пхэньи хлыстами.

(Подготовлен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интернет-сайтов)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арлам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одобрил назначение Чон Ый Ёна на пост главы МИД

Комитет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и воссоедине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одобрил на своём заседании 8 февраля кандидатуру Чон Ый Ёна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 его поддержку проголос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заявив, что, если оппозиция будет отвергать кандидата без уважительных причин, у них не останется другого выбора, кроме как назначить его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покинули зал заседаний, посчитав Чон Ый Ёна неподходящим для этой должности. Они утверждают, что кандидат допустил ряд нарушений, будучи ответственным за вопрос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и должен нести за эт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 РК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крупнейший в мире морской ве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5 феврал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церемонии подписа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на сумму 48 трлн вон (43 млрд долларов) по созданию крупнейшего в мире морского ве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инане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Там к 2029 году будут поэтапно построены объекты максимальной мощностью 8,2 гигаватт. Э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мощности восьми ядерных реакторов, что позволит сократить выбросы двуокиси углерода примерно на 10 млн тонн в год.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ряд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естными жителями. После ввода комплекс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ожидается создание 120 тыс. рабочих мест. РК поставила перед собой цель достичь к 2050 году нулевого уровня выбросов углерода.

В РК одобрен первый отечественный препарат для лечения COVID-19

5 февраля Корей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одобрило препарат СТ-P59 на основе моноклональных антител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мпании Celltrion. Это первый отечественный препарат для лечения COVID-19. Его можно вводить пациентам из группы повышенного риска, то есть,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0 лет, с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сердца, сосудов,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и диабетом. Широкое применение препарата станет возможно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Celltrion представит результаты третьей фазы клиниче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В январе компания Celltrion представила результаты второй фазы, сообщив, что СТ-P59 сокращает время выздоровления и снижает вероятность тяжёлых случаев.

Фильм «Минари»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премию «Золотой глобус»

Фильм «Минар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Ли Исаака Чона номинирован на премию «Золотой глобус» этого года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фильм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писком, представленным Голливудской ассоциацией иностранной прессы, его соперниками в борьбе за награду будут фильмы «Ещё по одной» Томаса Винтенберга из Дании, «Ла Йорона» Хайро Бустаманте из Гватемалы, «Вся жизнь впереди» Эдвардо Понти из Италии и «Мы» Джордана Пила из США. Сюжет фильма «Минари» основан на истории жизни самого режиссёра, родители которого в 80-х годах прошлого века переехали в штат Арканзас и начали занимать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Премия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была учреждена в октябре 1943 года, а перв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оялась в январе 1944 года. Лауреатов премии определяют 93 члена Ассоциации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при Голливуд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лауреатом «Золотого глобуса»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фильм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стал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он Чжун Хо «Паразиты».

Запрет на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4 человек помог сдержать COVID-19

С тех пор, как 23 декабр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вело запрет на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чем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жители Сеула стали меньше перемещаться по городу. К такому выводу пришла одна из крупнейш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операторов связи KT, опубликовав 7 января анализ больших данных. Как показали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максимальное число пешеходов фиксировалось на улицах в период с 18:00 до 21:00, однако после 21:00, когда закрывались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оно сокращалось наполовину. В результате количество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составлявшее в декабре в Сеуле в среднем 320 в день, тоже сократилось наполовину.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жители столиц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усилиях властей по борьбе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Кроме того, доказана прямая связь между уровнем перемещения населения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COVID-19. Так, в муниципальном округе Чонно-гу, где много офисных зданий, выявлено сам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фекций в Сеуле. При этом в округах Кандон-гу и Канбук-ку, где в основном сосредоточены жилые дома, инфекций гораздо меньше.

(RKI)

«Я люблю жизнь и умею мечтать!»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 странице)

Знаковая работа прошлого года — альбом песен военных лет «Нации победителей посвящается...» к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Расскажите об этом важном проекте поподробнее.

Я очень долго не могла решиться. Давно уже мечтала об этом проекте, но не могла взять и сделать это, потому что велика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мэтры наши шикарно исполняли эти песни, их любят и ценят вся страна, и лучше не братья вообще, если ты не уверен. Но здесь я просто почувствовала сердцем, что наступил момент. Нужно делать по-честному, искренне. И идея у нас была спеть так же, как бы пели фронтовики, находясь в окопах, в землянках. Мы поэтому не стали мудрить. Я благодарю группу «Реликт» —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ые ребята, я их знаю много-много лет, они поют романсы. Мы просто взяли четыре гитары и спокойно, от души спели этот альбом. Еще принимал участие замечательный музыкант-аранжировщик Алексей Сахаров, он подпольный, его знают только настоящие музыканты. И вот мы взяли и сделали эту историю. Очень долго репетировали, до записи сидели просто сутками и пели, чтобы найти это настоящее звучание. И мы даже затронули период самоизоляции с несколькими песнями. Но мы не могли не закончить альбом — понимали, что потом просто не выйдем. И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ю всех за то, что никто не отказался.

Когда вы только начинали свой творческий путь, ходило много историй о вашем родстве с Виктором Цоем. Наверное, вас часто просят исполнять его песни? Они есть в вашем репертуаре?

Очень многие думают, что я пою песни Виктора Цоя, но это не так. Я никогда не пела «Звезду по имени Солнце». Единственный раз я исполняла его песню в телевизионном проекте «Один в один» — так уж вышло, что мне она попалась, ничего нельзя было сделать. Я настолько люблю этого артиста, он мой кумир, и я считаю, что лучше не трогать святое. Он спел настолько круто! Бешеная харизма, уникальный тембр голоса.

Высоцкий, Витя Цой — очень мало можно назвать артистов, которые поют харизмой. Их лучше не перепевать. Либо пародия получится, либо подражание. Все знают, что обладатели прав получают деньги за то, что мы исполняем песни того или иного артиста.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Александр Цой также имеет полное право получать все «авторские» за исполнение песен его отца. Например, если бы я сейчас спела в эфире, он бы получил денежку. И вдруг я прочитала в прессе, что он взял и закрыл права. У меня во время записи альбома военных лет была такая история, связанная с песней «Журавли». Я до сих пор очень сильно переживаю, потому что правообладатель, наследница, уехала за границу и запретила использовать где-либо каким-либо образом песню «Журавли», которую пели легенды наши, включая Иосифа Давидовича Кобзона. Такие песни, как у Вити Цоя, — это народные песни, без них нельзя представить нашу страну. Я пока не знаю, чем вызван запрет, но надеюсь, что Саша поймет.

Говорят, что однажды вас объявили персоной нон-грата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Это миф или реальная история?

Это был 1990 год, я приехал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на большой фестиваль — стоял вопрос об объединении двух Корей, приехали корейцы со всего мира. Мы все выступали на разных площадках, пели песни, и нам, как почетным гостя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дарили малюсенькие значки товарища Ким Ир Сена. Тогда еще жив был главный вождь, и к значкам очень трепетно относился народ.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когда я выходила на



сцену, у меня поползла молния на платье. Под рукой ничего не было, и я взяла этот значок, заколола себе разрез, выступила и потом добровольно пошла к нашему переводчику (а он был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рассказала о своей ситуации, попросила помочь мне найти иголку с ниткой. Он побледнел как полотно, куда-то ушел, потом пришел и объявил, что я персона нон-грата и должна в течение 24 часов покинуть страну.

Вы 30 лет счастливы в браке. В чем секрет семейной жизни?

Есть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и бытовой секрет. Пожалуй, начну с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это определиться, нужен тебе этот человек или нет. А если вы определились, то вы все стерпите, а дальше пройдут годы, и вы поймете, что все на самом деле хорошо.

Теперь бытовой секрет. Однажды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мы переночевали с мужем в разных комнатах и поняли, как мы хорошо выпались. Утром проснувшись довольные, счастливые, никто ни на кого не ругался,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ы пришли к заключению, что надо спать отдельно друг от друга. Но это не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нужно жить отдельно.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меть свое лич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 это лучшее, что я могу вам посоветовать. Между вами исчезнут все ссоры и конфликты,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вы всегда будете красивой приходите к своему возлюбленному.

Три наших правила семейной жизни
Первое: за столом есть определенное место, где сидит всегда мой муж. И даже когда его нет дома и приходят гости, это место всегда свободно.

Второе правило: никогда не ругаться при сыне. Мы решили это уже давно, когда ему было 5 лет. Поссорились и поняли, что нанесли ему очень большую травму. Он подошел, взял нас за руки и горько плакал. Тогда мы поняли, что так нельзя делать точно.

Третье правило: муж всегда в доме хозяин, и он всегда прав. Улыбка и такая позиция — это самое надежное в борьбе с любой красавицей, которая может встать на вашем пути.

С какими ощущениями встретили свой юбилей, на сколько лет себя ощущаете?

По характеру и стилю жизни я чувствую себя где-то на 20-25. Я люблю жизнь и умею мечтать, а уметь мечтать — удел молодых. Мне кажется, каждый рождается с определенным возрастом внутри себя. Я знаю молоды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очень мудры, как будто им за 60. И наоборот.

Вероника Романова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а Аниты Цой

Источник: сайт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PP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Более 15 километров сахалинских дорог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в 2021 году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ремонт направят 2,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том числе 175,5 миллиона –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удут завершены работы на участках дороги Невельск – Томари – аэропорт Шахтерск в пределах сел Чехов, Новосибирское и Красногорск. Свыше 8 километров улично-дорожной сети приведут в нормативное состоян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дадут участки по улицам Ленина, Украинской, Памятной и 4-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на северо-западном объезде, а также на улиц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и ряде других объектов.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уложить более 128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асфальтобетонного покрытия, устроить 32 автобусные остановки, свыше 28 километров пешеходных дорожек и тротуаров, около 14 километров линий освещения.

Напомним, что в 2020 году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завершил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участка в Костромском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Был построен мост через ручей Красносельский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а автодорога между селами Дальнее и Елочк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асфальтировали улицу Пограничную – на участке от Комсомольской до Горького.

Отметим,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Безопасные и качественные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реализуется с 2019 по 2024 годы. Ожидаемые результаты – доля региональных трас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нормативу, должна превысить 55 процентов, а доля дорожной се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город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 вырасти до 85 процентов.

Напомним, с этого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шесть раз увеличили расходы на содержание дорог. Повышенные требования предъявляются к расчистке, текущему ремонту и в целом поддержанию хорошего состояния дорог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На Сахалине в День российской науки обсудили климат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Об изменении клима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человека, ледовитости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и сохранении лососей говорили сегодня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руглом стол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руглый стол «Климат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и их влияние на экосист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тран АТР и Северной Пацифики» собрал научных и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аспирантов и студентов вуз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ботников предприятий из России, Японии и СШ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крыла круглый стол Мария Ганченкова, врио ректора СахГУ.

– Сегодня особый праздник не только для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траны, но и для всех, кто готовит научные кадры для регионов и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2021-ый объявлен Президентом страны, как «Год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 отметила она.

Первый блок докладов посвятили мировой повестке глобального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Поднимались темы «низкоуглерод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человека.

– Наши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казали, что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вызывает социальную озабоченность. Четверть из опрошенных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отметили вопросы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ак тревожные, а 80 процентов считают, что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влияет на здоровье и самочувствие, – сказал доктор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доцент,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СахГУ Евгений Бояров.

На сек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экосистеме и биоресурсам, участники дискуссий рассказали о влиянии льдов на вылов и урожайность поколений минтая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об изменении ледовитости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за последние 60 лет, о сокращении среды обитания бурого медведя в условия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Профессор колледжа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океанологии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Аляски в Фэрбенксе Питер Уэстли остановился на собственных наблюдениях по влиянию климата на реки и водные бассейны.

– Изменения водных режимов и климат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не признают границ, – отметил он. – Поэ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международ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 вопросам адаптации к изменению климата. Во многих водных бассейнах мира влияние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на экосистемы и общество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ощутимым. Обеспечение устойчивости к таким изменениям – важная задача, поскольку смена климата негатив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качестве и количестве водных ресурсов, на температуре воды и водных экосистем.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уч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обсудили ресурсосберегающие технологии и особен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в условиях изменения климата.

Подводя итоги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отметил, что климатический вопрос – один из центральных в мировой повестке.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активно включается в обсуждение климат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У нас есть большой задел с точки зрени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х работ и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снижение «углеродного следа». Перед собой ставим задачу стать к 2025 году углеродно-нейтральным регионом. Поэтому вместе с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 науч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мы должны вместе двигаться к реализации этой задачи, – сказал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Наработанный в ход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материал впоследствии будет обобщен и опубликован в научн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журнале.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т 3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Решение о выделении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принят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ей «Фонд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КХ»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 работе мы уделяем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теме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для жителей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Выделенные федеральным центром средства направим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второй очереди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ОСК-7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Этот объект важен, от него зависит очистка бытовых и промышленных стоков, а значит, эколог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в городе и его окрестностях,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одернизация сооружений пройдет в 2021-2023 годах. Стоимость проекта – 50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300 миллионов предоставит Фонд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КХ, ост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 областной и муниципальный бюджеты.

– В итоге мы существенно повысим надежность очистных сооружений и поднимем суточную мощность – до 90 тысяч кубометров.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оответствует современ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По окончании модернизации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подключения к системе водотведения и новые потребители, – отметила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истр ЖКХ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Первая очередь реконструкции ОСК-7 завершается в этом году. После ввод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о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линии старые объекты будут поочередно реконструироваться.

Ранее Фонд содействия реформированию ЖКХ выделил Сахалину более 2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ех газовых котельных. Объекты суммарной мощностью 12 мегаватт появятся в селах Зональное, Кировское и Ясное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шко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зобновили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Завершилась проверка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 всех 149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нформация о минировании не подтвердилась, пребывание учащихся в школах безопасно.

– Важно было исключить возможные угрозы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проверить поступившую трево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К счастью, она не подтвердилась и школы возвращаются к обычному режиму работы. Уже сегодня пройдут занятия второй смены в тех учреждениях, где он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Завтр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цесс продолжится, – сообщи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Глава ведомства добавила, что вторую смену отменили в школах Холмска из-за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Напомним, 8 февраля после сообщения о минировании школ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и экстренную проверку все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Ситуацию на контроль сразу же вз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оторый попросил жителей отнестись с пониманием к этой ситуации и проявить бдительность.

159 семей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лучили квартиры в современной высотке

Переселенцы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обустроиваются в комфортабельных квартирах по улице Поповича, 18. Это одна из самых высоких многоэтажек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с видом на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егодн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ил жильцов с новосельем.

– Переезд в новую квартиру – это всегда большое и радостное событие. А когда получаешь её в таком красивом, теплом и уютном доме, приятно вдвойне. Поэтому искренне поздравляю новоселов, – отм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емнадцатизэтажный дом на улице Поповича сдали «под ключ». Сахалинцы получили квартиры с ремонтом, современной сантехникой, кухонными плитами и системой отопл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ли лифт и подземную парковку.

Возведение дома проходило в ускоренном темпе – на все работы ушло чуть больше года. При этом на завершающих этап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вартиры осматривали будущие жильцы. Недочеты оперативно устранялись. Такую традицию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ве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Я приходила в квартиру со своими товарищами, которые хорошо разбираются в сантехнике и электрических системах. Они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качество выполненной работы. Да и у меня самой к строителям не было абсолютной никаких замечаний, – рассказала Лариса Старченко. – Больше всего мне понравилась кухня с видом на горы. А еще у меня очень хороший зал – комната имеет квадратную форму, поэтому в ней можно красиво расставить мебель.

– Квартира мне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В ней тепло и светло. Она лучше, а главное больше прежней. Сейчас навожу уют. Скоро перевезу мебель,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Галина Семенова. – Раньше я жила в старом доме на улице Невельской. Возвращаться туда не хочу даже мысленно – там был холодный пол, по которому бегали крысы и тараканы.

Как отметил мэр город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в планах на эту весну – завершить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придомовой

территории. Однако дети и взрослые могут отдыхать на ней уже сейчас – здесь обустроили детскую и спортивную площадки.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России завершает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признанного таков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Та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егионе расселили 126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такого жилья. Теперь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новится пилотным в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программы переселения людей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До конца 2026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селить свыше 640 тысяч аварийных «квадратов».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ключило с ДОМ.РФ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жилищной сфер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руководство финансового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ДОМ.РФ направлено на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сред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2020 году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рирост к 2019-ому по возведению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составил 65 процентов.

–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для нас представляют проекты ДОМ.РФ в жилищно-строительной сфере и в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я городов. При этом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мы уделяем разработкам, позволяющим обеспечить территории инженерной и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Подписанное соглашение поможет нам реализовать многие совместные программ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величение объемов возведения жилья и рост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Главная цел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ДОМ.РФ – это забота о людях, которые живут на Сахалине и на Курилах,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ДОМ.РФ Виталий Мутко, финансовы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пустили краудсорсинговую платформу чего-хочет-сахалин.рф. Там было собрано более 500 предложений от жителей по улучшению обли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Сегодня региональная сто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другим городам пример положительных изменений. Согласно Индексу качества, сре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является благоприятной, и показатели будут еще улучшаться. Уже реализован первый этап проекта пешеходно-велосипедного променада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имени Гагарина – Ботанический сад – река Еланька». Благодаря заключенному соглашению и усилению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добные программы могут охватить всю область. Мы готовы оказывать содействие региону в их разработке, – сказал Виталий Мутко.

Соглаше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также активизацию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ипотечным программам. В 2020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ыло выдано на 39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кредитов, чем в 2019-ом. Общая сумма (21,6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увеличилась на 65 процентов.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ют м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 льготная ипотека под 6,5 процентов и двухпроцент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Более 1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уже прошли вакцинацию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Еще около 9 тысяч жителей записались на процедуру. Массовая иммунизация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ражается на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на островах – в медучреждении сократилось число обращений с ковидом.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сегодня проверил, как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в мобильных пунктах вакцинации. Одна из последних таких точе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ась в торговом центре «Мегаберезка».

– Я увидела объявление. Так совпало, что в этот день пришла за продуктами. Заодно и прививку сделала, как раз планировала. Очень удобно! До этого все недосуг было позвонить в поликлинику, – рассказала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аисия Виноградова.

На пунктах вакцинации в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соблюдаются санитарные нормы, в том числе по наличию анафилактических препаратов, хранению вакцины при низкой температур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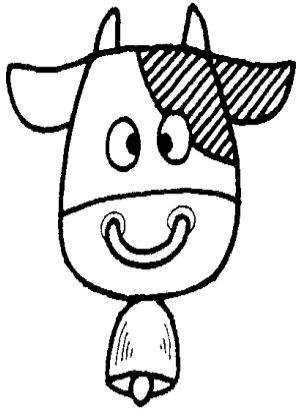
– Пациент может даже не записываться заранее. Достаточно принести с собой документы – паспорт, полис, СНИЛС. В мобильном пункте работает бригада медработников. Они осматривают, уточняют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 то есть проводят ту же работу, что и в поликлиник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главный врач поликлиники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вгения Исагулова.

Иммунизация проводится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Сделать прививку можно и в отдаленном селе, и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приезжают на дом к маломобильным гражданам, на предприятия.

– Вакцина работает – заболеваемость постепенно идет на спад. Мы дважды в день отслеживаем ситуацию по привившимся, по их состоянию, по тому, как налажен процесс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Все факторы говорят о том, что темпы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степенно снижаются,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Напомним, для удобства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расширены каналы записи – по телефону 1-300,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и при личном обращении в поликлиник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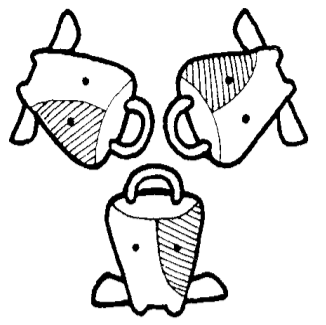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1년



	1월 음력 11-12월					2월 음력 12-1월					3월 음력 1-2월				
월	4 21	11 28	18 6	25 13		1 12.20	8 27	15 4	22 11		1 1.18	8 25	15 3	22 10	29 17
화	5 22	12 29	19 7	26 14		2 21	9 28	16 5	23 12		2 19	9 26	16 4	23 11	30 18
수	6 23	13 12.1	20 8	27 15		3 22	10 29	17 6	24 13		3 20	10 27	17 5	24 12	31 19
목	7 24	14 2	21 9	28 16		4 23	11 30	18 7	25 14		4 21	11 28	18 6	25 13	
금	1 11.18	8 25	15 3	22 10	29 17		5 24	12 1.1	19 8	26 15		5 22	12 29	19 7	26 14
토	2 19	9 26	16 4	23 11	30 18		6 25	13 2	20 9	27 16		6 23	13 2.1	20 8	27 15
일	3 20	10 27	17 5	24 12	31 19		7 26	14 3	21 10	28 17		7 24	14 2	21 9	28 16
	4월 음력 2-3월					5월 음력 3-4월					6월 음력 4-5월				
월	5 24	12 3.1	19 8	26 15		3 22	10 29	17 6	24 13	31 20		7 27	14 5	21 12	28 19
화	6 25	13 2	20 9	27 16		4 23	11 30	18 7	25 14		1 4.21	8 28	15 6	22 13	29 20
수	7 26	14 3	21 10	28 17		5 24	12 4.1	19 8	26 15		2 22	9 29	16 7	23 14	30 21
목	1 2.20	8 27	15 4	22 11	29 18		6 25	13 2	20 9	27 16		3 23	10 5.1	17 8	24 15
금	2 21	9 28	16 5	23 12	30 19		7 26	14 3	21 10	28 17		4 24	11 2	18 9	25 16
토	3 22	10 29	17 6	24 13		1 3.20	8 27	15 4	22 11	29 18		5 25	12 3	19 10	26 17
일	4 23	11 30	18 7	25 14		2 21	9 28	16 5	23 12	30 19		6 26	13 4	20 11	27 18
	7월 음력 5-6월					8월 음력 6-7월					9월 음력 7-8월				
월	5 26	12 3	19 10	26 17		2 24	9 2	16 9	23 16	30 23		6 30	13 7	20 14	27 21
화	6 27	13 4	20 11	27 18		3 25	10 3	17 10	24 17	31 24		7 8.1	14 8	21 15	28 22
수	7 28	14 5	21 12	28 19		4 26	11 4	18 11	25 18		1 7.25	8 2	15 9	22 16	29 23
목	1 5.22	8 29	15 6	22 13	29 20		5 27	12 5	19 12	26 19		2 26	9 3	16 10	23 17
금	2 23	9 30	16 7	23 14	30 21		6 28	13 6	20 13	27 20		3 27	10 4	17 11	24 18
토	3 24	10 6.1	17 8	24 15	31 22		7 29	14 7	21 14	28 21		4 28	11 5	18 12	25 19
일	4 25	11 2	18 9	25 16		1 6.23	8 7.1	15 8	22 15	29 22		5 29	12 6	19 13	26 20
	10월 음력 8-9월					11월 음력 9-10월					12월 음력 10-11월				
월	4 28	11 6	18 13	25 20		1 9.27	8 4	15 11	22 18	29 25		6 3	13 10	20 17	27 24
화	5 29	12 7	19 14	26 21		2 28	9 5	16 12	23 19	30 26		7 4	14 11	21 18	28 25
수	6 9.1	13 8	20 15	27 22		3 29	10 6	17 13	24 20		1 10.27	8 5	15 12	22 19	29 26
목	7 2	14 9	21 16	28 23		4 30	11 7	18 14	25 21		2 28	9 6	16 13	23 20	30 27
금	1 8.25	8 3	15 10	22 17	29 24		5 10.1	12 8	19 15	26 22		3 29	10 7	17 14	24 21
토	2 26	9 4	16 11	23 18	30 25		6 2	13 9	20 16	27 23		4 11.1	11 8	18 15	25 22
일	3 27	10 5	17 12	24 19	31 26		7 3	14 10	21 17	28 24		5 2	12 9	19 16	26 23



신축년

- 음력설
2.12
한식
4.5
단오
6.14
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
추석
9.21
성탄절
12.25



절기	소	대	입	우	경	춘	청	곡	입	소	망	하	소	대	입	처	백	추	한	상	입	소	대	동	
(양력)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일	5	20	3	18	5	20	4	20	5	21	5	21	7	22	7	23	7	23	8	23	7	22	7	22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대회 참가 시 참가자들은 'A' 종목 또는 'B'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A종목의 선수들은 잠수복을 입고 방한모자와 보안경을 쓰고 참가하며, B종목은 잠수복, 모자, 보안경 없이 참가한다. 수영 코스는 연령별로 나뉘는데 25m와 50m 코스에서 경기를 치른다.

Первые област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холодному плаванию пройдут на Сахалине

20 февраля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пройдет Куб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холодному плаванию.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выбрано Червячное озеро, располагающее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Лесное озеро» в селе Охотском.

Как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спорта, участниками заплыва могут ст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портсмены и любители, имеющ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подготовку,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лет и предоставившие следующие документы: заявление на участие, медицинскую справку о состоянии здоровья, страховой полис, страхование участника в физкультурных и спортив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от получения травм, увечий или смерти, паспорт.

Желающим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необходимо выбрать одну из двух категорий: «А» и «Б». Спортсмены категории «А» плывут в гидрокостюмах, очках и утепленных

шапочках. Пловцы категории «Б» — без гидрокостюмов, в очках и обычных шапочках.

Заплывы делятся по возрастным категориям. Спортсменов будут ожидать две дистанции: 25 и 50 метров.

Сахалинских фотографов, '예술의 거울' 결승에 진출

Сахалинских фотографов '예술의 거울' 전국 직업적 장인 경연대회 결승전에 진출했다. Сахалин 출신의 세르게이 크라스ноухов, 드미트리 코왈료브는 지역 예술단체에서 공연한 연극 '췌르킨' 과 '늑대와 염소와 새끼 염소'에서 장면을 촬영하여 <극장>부문에 출전했다. 이들 사진작가들의 작품은 독창성과 독특한 표현법 면에서 선정되었다.

'예술의 거울' 첫 전국 사진 경연대회는 국내 동계예술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이 대규모 행사는 러시아 사진작가 연맹과 러시아 공연 진행부가 주최했다.

사진작가들이 심사를 위해 5천 개 이상의 작품들을 제출했다. Сахалин 사진작가들의 작품은 독특한 흑백의 장면들로 1,181개 작품 중에 선정되어 <극장>부문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세르게이 크라스ноух오브의 사진작은 체호브 센터에서 공연한 연극 '췌르킨'의 장면을 반영하고 드미트리 코왈료브는 Сахалин 인형극장에서 공연한 연극 '늑대와 염소와 새끼 염소'를 촬영했다.

심사위원단은 5천 개의 작품들 중 각 부문별로 10개의 작

품을 선정했다. 체호브 센터가 전한 바에 따르면 사진작가들은 5개의 부문 - <음악>, <극장>, <회화 예술>, <문학>, <관객> - 에서 심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Сахалинские фотографы вышли в финал «Зеркала искусств»

Сахалинские фотографы вышли в финал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Зеркало искусств». Островитяне Сергей Красноухов и Дмитрий Ковалев подали заявки в номинации «Театр», сделав кадры на спектаклях «Теркин» и «Волк, коза и козлята» в местных творче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Работы фотографов выделили за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и уникальный почерк.

Первы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фотоконкурс «Зеркало искусств» состоялся в рамках Зимнего фестиваля искусств в стран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масштаб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и Союз фото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и Русское концертное агентств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фессии прислали на смотр свыше пяти тысяч кадров. Работы сахалинских фотографов стали финалистами в номинации «Театр» — уникальные черно-белые кадры выбрали из 1 181 заявки. На снимке Сергея Красноухова запечатлена сцена из спектакля Чехов-центра «Теркин», Дмитрий Ковалев снял спектакль «Волк, коза и козля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театре кукол.

Экспертное жюри отобрало из пяти тысяч заявок по 10 работ в каждой категории.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Чехов-центре, фотографии оценивались в пяти номинациях: «Музыка», «Театр»,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Литература» и «Зрители».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http://bilet.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